

보도 희망 일시	2025. 4. 17. (목) 배포 즉시
문의	국가미래전략원
	주양희 전화: 880-2893, 이메일: clairejoo@snu.ac.kr

배포일: 2025.4.17.(목)

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, '분권 개헌과 국가 혁신' 특별 대담회 개최

-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(원장 강원택)은 2025년 4월 17일(목) 오후 2시,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「분권 개헌과 국가 혁신」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다. 유홍림 서울대 총장의 환영사와,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축사로 시작한다.
- 이번 회의는 현재 최근의 정치 위기 상황에서 각계각층에서 제기해 온 개헌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, 국가 혁신과 정치개혁, 그리고 이를 통한 정치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.
- 주제 발표는 정종섭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맡았다. 정 원장은 헌법학의 권위자로 개헌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 있는 주장을 펼칠 것이다.
- 토론에서는 권오을 전 국회의원,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,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,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,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, 임성진 전주대 교수, 하승수 공익법률법인 농본 대표 변호사 등 지방자치, 헌법, 정치, 법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개헌 방안과

추진 전략을 다각도로 논의한다.

- 강원택 국가미래전략원장은 “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으로 발생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, 지역 소멸과 인구감소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”며 “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적 논의와 정책적 해법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련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-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“그간 개헌 논의가 주로 대통령과 총리, 국회의 권한 분산 등 수평적 개헌에 집중되어 있었던 만큼 지방분권 등 수직적 개헌의 중요성을 조명한 이번 대담회는 의미가 남다르다”며 “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 확대, 강화를 통해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체계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”고 덧붙였다.